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조현민 도마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학습목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인간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안다.

준비물 : 예화 프린트물

신작기도

형제에게 베푸는 것(가톨릭 성가 41번)

바라보기

- 1)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인격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업1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와 다른 친구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유	나와의 관계
나와 싸운 친구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 항상 옆에 있는 친구		
내가 존경하는 친구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람은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조언을 들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나는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했으며 스스로를 사랑했는지 살펴 봅시다.

알아보기

- 1) 나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작업2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 (이웃 변론하기)

- 왕따를 당하는 친구 되어 보기.
- 가난한 친구 되기.
-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친구 되기.
-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버릇이 있는 친구 되어 보기.
- 욕 잘하는 친구 되어 보기.
- 남의 말에 토를 달고, 시비를 붙이는 친구 되기.

예화

밤 11시 30분, 나는 마지막 지하철을 겨우 타고,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다. 일을 마친 몸은 긴장이 풀린 듯했고, 아무렇게나 쓰러져 곧 바로 꿀아 떨어지고 싶었다. 눈을 잠시 붙이려고 의자에서 뒤척이는데, 나의 눈앞에 한 어린 소녀가 어른거린다. 나는 그저 어디론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한 소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아 버렸다. 그러나 나의 망막에는 그 소녀의 잔상이 계속해서 어른거렸고, 이내 나는 소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허술한 옷차림, 70년대 말에나 보았을 범한 배낭에, 손톱에는 연두색, 빨간색, 보라색의 매니큐어가 이리저리 칠해져 있고, 하늘로부터 자신을 온통 가리고 싶은지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다. 가끔 불안한 듯한 눈이 지하철 여기저기를 둘러 보았고, 주머니 속 깊이 자리한 표 한 장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소녀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저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집을 나온 아이일까?’ ‘이제 내가 내릴 정류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등포, 이 역을 지나면 나는 마지막 버스도 놓칠 것이고, 수중에는 집에까지 갈 만큼의 택시비도 없었다. 대방, 이미 차는 역을 지났고, 나는 뭘지 모르는 힘이 나를 소녀에게서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내 생각이 틀렸다면? 내가 괜한 것에 신경을 쓰는 거라면? 나의 머리는 복잡했다.

나는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 눈을 감아 버렸다. ‘나의 딸, 나의 사랑하는 조카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저 아이가 내가 아는 아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 아이를 그냥 놔 두면 저 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갑자기 나의 머리는 무엇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2000년 겨울)

주위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을 생각해 보고, 가장 가까운 사례를 하나씩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는 친구들이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그

친구들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 속에 하느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영이 있으니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사회는 엄격한 체제 속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힘이 있는 사람만이 대접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 어린아이들, 병자들, 힘이 없어서 지배당하는 사람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를 보고 체험 하심으로써 체제의 잘못을 고발하고 회개하도록 권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역시 2000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부할 조금 못한다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다고,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도시락 반찬이 형편없다고, 비싼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친구들을 업신여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영이 스며있는 한 인격체를 모독함으로써 하느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화 과정에 함께해야 합니다.

실천

청소년 보호 기관, 행려자 보호 기관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 봅시다.

자원 봉사 활동 수칙

① 기관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저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 아무 곳이나 찾아가 ‘봉사활동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일은 이제 그만 합시다.

② 담당자를 먼저 만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 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피상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나’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을 들여 봐야지 하는 식의 사고는 자신을 우위에 놓고 생각하는 우월주의식 사고입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돕는다든지 우선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③ 봉사활동 날짜를 잡고 계획성 있게 합니다.

학교에서 채워야 하는 연간 봉사활동 점수에 급급해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30분 일하고 3시간을 써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담당자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꾸준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④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은 꼭 남이 모르는 데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당에서 활동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들을 통해 다양한 곳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레지오나 빈첸시오회 등 본당 청년들과의 유대를 통해 졸업 후에도 활동할 수 있고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기도

태양의 찬가(성 프란치스코)